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26.(목)

2027년 비급여 보고·공개항목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

- 2026년 「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」 제3차 회의 개최 -
- 독감치료제·성장호르몬제 등 가격 공개 추진 -
- 방사선 온열치료 등 관리급여 전환 적절성 검토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지난 11월 24일(화) 15시 30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**논의기구**인 **'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***(이하 협의체)'의 **2026년도 제3차 회의**를 **개최**해 **▲2027년 비급여 보고·공개항목 확대안 ▲관리급여 전환이 논의된 항목에 대한 방향 재검토 ▲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후속 관리방안**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

* 의료계, 환자·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련 정책의 사회적 논의기구('16.12.~)

먼저, **국민의 알 권리**를 **보장**하고 **비급여 이용 현황**을 **보다 폭넓게 파악**하기 위해 **비급여 보고항목 및 가격 공개항목 확대안**에 대해 논의하였다. 매년 보고·공개항목을 **단계적으로 확대***해왔으며,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**2027년 보고·공개항목을 확대할 예정****이다.

* (보고항목) '24년 1,068개 → '25년 1,251개 → '26년 1,411개 → '27년 1,723개(예정)
(가격 공개항목) '24년 623개 → '25년 693개 → '26년 753개 → '27년 896개(예정)

** (보고항목 추가) 일부 신의료기술(평가유예 포함), 학업성취검사 등
(가격 공개항목 추가) 독감치료제(페라미비르수화물), 성장호르몬제 등

또한, 지난 협의체('25.12.9.)에서 **관리급여 항목**으로 **검토**하기로 **논의한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**과 **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**에 대해 **추가 논의**를 **진행**하였다. 각 항목의 의학적 근거,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**관리급여 전환 적절성 여부**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.

아울러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**의료 이용변화**를 점검하였고, 건강보험·실손보험은 진료 후 청구까지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, **추가적인 분석**을 거쳐 다음 협의체에서 **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**하기로 하였다.

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"**비급여 항목별 특성**과 **의학적 필요성**을 고려하여 **적정한 관리방안**을 마련하겠다"라며, "**관리급여 시행 이후 의료이용 변화**를 **지속적**으로 **점검**하여 **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**"라고 밝혔다.

<붙임> 제3차 「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」 개요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팀	책임자	팀 장 정순애 (044-202-2690)
		담당자	사무관 한 샘 (044-202-2691)

붙임 **제3차 「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」 개요**

□ 일 시: ’26. 11. 24.(화), 15:30 ~ 17:30

□ 장 소: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(23층)

□ 참석대상

○ (민간위원) 의료계, 환자·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 15인

○ (정부위원)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

□ 안건

○ 2027년 비급여 보고·공개항목 선정(안)

○ 관리급여 대상항목 방향 재검토

○ 관리급여 제도 도입 관련 후속 관리과제 검토

□ 진행순서(안)

시간		주요 내용	비고
15:30~15:35	5'	개회 및 회의 진행	위원장
15:35~16:05	30′	안건 발표	심평원, 공단
16:05~17:25	80′	논의 및 토론	전체위원
17:25~17:30	5′	정리 및 마무리말	위원장